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소수대다수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소수대다수
191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1910 년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 외 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는 〈소수 대 다수〉 만을 옮긴다.

우리시대의특징을한단어로말하라면나는‘양 quantity’이라하겠다. 대중의힘이도처에서위력을떨치고질적인것을파괴한다. 우리의모든삶이생산, 정치, 교육이양과수에달려있다. 한때철저한장인정신과자기일의질적인품격을자랑스럽게여기던노동자들이이제는머리도쓰지않고유능하지도않은자동부품같은노동자들로대체되었다. 이런노동자들이엄청난양의물건들을쏟아낸다. 삶에평안과안락을더해주지못하는이런양적인것들은인간의부담만가중시킬뿐이다.

정치에서도양이판친다. 양적증가에비례하여원칙과이상과정의와신의같은것들은완전히수적질서속에파묻힌다. 우위를점하려는투쟁을하면서여러정당들은서로속임수와기만과교활함과뒤통수치는숨씨를발휘하여다수를차지하려한다. 다수가되어야만승자가된다. 성공만이유일한신이다. 얼마나비용이들고어떤끔찍한희생을치르느냐는중요하지않다. 이런솔픈사실을굳이확인해주기위해애쓸필요는없을것이다.

과거정부가이토록뻔뻔스럽게드러내놓고부패하고철저하게썩은적이없었다. 국민의권리와자유를진정으로보호하는수호자로서의정부의배반행위는과거몇년동안의비난을훨씬뛰어넘는것이였다.

정치모리배들이다수를차지하고부패한정치현실이확고하게우위를점해버린지금정치집단의범죄는극에달해소경도그것을볼지경인데수없이이용당하고배신당한다수는정치판의승자에게대항하지않고오히려그편을들고있다.

소수는당황하였다. 어떻게그렇게많은사람들이미국적자유의전통을배반했는지묻지않을수없었다. 판단이어디에있으며, 합리적능력은도대체어디로갔는가? 합리적능력을상실한이유는다수가합리적으로추론할수없기때문이다. 다수는옳은판단능력이없다. 독창성과도덕적용기를완전히상실한다수는항상자신의운명을타자의손에맡기고있다. 스스로책임질능력이없기때문에다수는파멸로가는줄도모르고지도자를추종한다. 스톡만(Stockman) 박사의다음과같은주장은타당하다.

“우리가운데있는진리와정의에대hang가장위험한적들은똥똥똥친다수, 저주받은저똥똥똥친다수이다.”

그러나대부분의대중들은기꺼이군인이되고, 정치가가되고, 감옥의간수가되고, 교수형집행자가되었다. 이들이없었다면자본주의의권위와사유재산은과연얼마나오래지속되었을것인가! 사회주의선동가들은결코쉽게자본주의의권위와사유재산을없애지못한다는사실을나놓지않게잘알고있다. 그러나저들은다수의미덕을주장한다. 왜? 사회주의자들의목적은권력을행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수적우위없이어떻게권력을장악할수있겠는가? 그렇다. 권력과권위와강제력은대중의힘에의존한다. 하지만절대거기에는자유, 개인의자유로운발전, 자유로운사회의원생은없다.

내가억압받은자, 기득권이없는자를동정하지않기때문에, 또그들이당하는수치와공포와분노를모르기때문에다수를영원한창조적세력이라고인정하지않고비난하는것은아니다. 절대그건아니다. 하지만대중은절대정의나평등을대변하지못한다는사실을나는아주잘안다. 다수는인간의목소리를억압하고, 인간의정신을짓누르고, 인간의몸을구속한다. 다수는항상삶을획일화하고젓빛으로만들고사막과같이단조롭게만든다. 대중은항상개인성을말살하고자유롭게표출되는독창성의발휘를막는다. 따라서나는다음과같은에머슨의주장을민는다.

“대중의요구와영향력은조잡하고서투르고유해하다. 대중에게는칭찬대신교육이필요하다. 나는대중의그어떤점에도동의하지않는다. 대중을훈련시키고, 분열시키고, 쪼개어각각의개인들로만들어야한다. 대중! 대중이재앙이다. 나는어떤대중도전혀원하지않으며오직정직한남자와사랑스럽고세련된여성만을원한다.”

달리말해사회적·경제적복지가살아있고활기를띠게하려면오직비타협적이고지적인소수의열정과용기와결심이있어야한다. 대중을통해이것이현실화되지는않는다.

미국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도 다수는 장애물이었다. 지금까지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제퍼슨 (Thomas Jefferson) 과 패트릭 헨리 (Patrick Henry) 와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 의 이념을 그 후예들은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중들은 그들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링컨이 숭상했던 위대한 과용기는 당대의 대서사시의 배경인 다수에 게이트였다. 흑인들의 참된 성자들의 모습은 보스턴의 소수의 투사들에게 남아있다. 그들은 로이드 개리슨 (Lloyd Garrison), 웬델 펄립스, 마가렛 풀러 (Margaret Fuller), 시어도어 파커 (Theodore Parker) 이다. 이들의 위대한 용기와 강인함은 존 브라운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웅변과 인내로 남부지주들의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이들이었고 링컨과 그 추종자들은 노예제 폐지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했을 때 그 대세를 따랐을 뿐이다.

약 50 년 전 별 같은 이념 하나가 이 세상의 사회적 지평 위로 떠올랐다. 이 이념은 너무나 멀리까지 너무나 혁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면서 전 세계 독재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한편 이 이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다.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이념은 인기 있는 슬로건이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의 이념적 지표가 된 사회주의다. 가난한 피해자는 물론 부자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자들도, 종교적 허위를 자행하던 자는 물론 자유로운 사상가들도, 평범한 아가씨는 물론 첨단 유행을 걷는 아가씨들도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는가? 이 50 년 전의 진리는 이제 거짓이 되었다. 이 사회주의 이념은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마비시키고, 젊은이의 열정과 힘과 혁명적 이상을 앗아갔다. 왜 사회주의를 거부하면 안 되는가? 사회주의는 더 이상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다. 다수의 의지에 힘입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체제가 사회주의다. 왜 거부할 이유가 없는가? 사회주의 역시 다른 정치와 마찬가지로 교활하고 용의주도하게 매일 같이 대중을 어리석게 만들고 응석받이로만 들고 그들을 속인다. 사회주의는 무수히 찬양되었다. 가난한 다수가, 억압을 받고 상처 입은 자들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찬양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장황한 발언을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모든 정치가들이 한결 같이 읊조리는 사회주의를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대중들이 피를 흘리고, 도둑을 맞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표를 얻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자도 안다. 하지만 이런가공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이 한 줌도 안 되는 기생충 같은 작자들에게 있다기보다 대중 자체에 있다. 대중은 그 주인들에게 매달려, 채찍을 감수하며 자신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라!” 고 가장 먼저 외쳤다. 그 순간 성스러운 자본주의적 권위와 부패한 제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기는 했을 것이다.

야망도, 지도력도 없는 대중은 아무것도 증오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진리의 선구자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괴롭힌다.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해 정치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우리 시대의 슬로건은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 곧소수의 시대라는 것이다. 물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라면 견해를 박수를 보낼지 모른다. 이 세계의 부는 소수에게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성공은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다. 대중의 무기력함과 비겁함과 철저한 순종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다. 대중은 오로지 지배당하고 지도받고 강제되기를 바란다. 개인주의를 말할 것 같으면 인류 역사상 어느 때에도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온전히 표출되지 못했고 자기 위상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정직한 목적의식으로 충만한 개별적 교육가와 근본적인 이상을 지닌 예술가나 작가 또는 독자적인 과학자나 탐험가, 비타협적인 선구자들은 매일 같이 낡은 지식과 창의를 가진 인간들에게 밀려난다.

페러 (Francisco Ferrer i Guàrdia) 와 같은 교육가들은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 조리되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곧 기존의 사회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교육, 곧 기계 부품 같은 인간 양성 교육 및 엘리트 교육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성공적으로 이 시대의 주요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학이나 드라마의 세계에서는 험프리 워즈 (Humphrey Wards) 와 클라이드 피치스 (Clyde Fitches) 같은 대중에 영합하는 인물들이 대중의 우상이지만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 과 소로 (Henry David Thoreau), 휘트먼 (Walt Whitman) 같은 인물들의 천재성과 미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입센 (Henrik Johan Ibsen) 과 하우프트만 (Hauptmann), 버틀러 예이츠 (Butler Yeats), 스테판 필립스 (Stephen Phillips) 같은 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대중의 지평을 넘어선 고독한 스타들이다.

출판인들과 극장주인과 비평가들은 창조적인 예술에 내재된 질적 품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 대중의 기호에 맞는 지만 고려한다. 슬프게도 대중의 기호란 덩핑 시장과 같다. 정신적인 소화 작용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맛이다. 결과적으로 진부하고 평범하고 뻔한 내용이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행세한다.

예술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공원과 도로변을 살펴 보라.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예술 작품들이 깔려 있다. 다수의 취향이 이런 예술적 유린을 참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구성이 잘못되고 수법이 미숙한 조각품들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미국 시민들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진짜 예술을 숭배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성공한 예술에 한해서다. 기존의 정해진 개념에 영합하지 않으며 자기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이를 삶 속에 실현하려고 애쓰는 진실된 천재 예술가들은 비참한 생애를 보낸다. 이 천재의 작품이 어느 날 대중의 일

시적유행에맞는날이올지도모르지만그때이미이천재의심장이멎었을 때일것이다. 이상도안목도없는대중이거장의유산을죽게한다.

오늘날예술가는프로메테우스같은삶으로는경제적궁핍에서헤어나 지모사기때문에결국창조적인예술을하지못한다고말한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예술가들은경제적인곤란을겪었다. 미켈란젤로는오늘날의조 각가나화가처럼자기후원자에게의존해야했다. 그러나예술적안목은대 중의무분별한식견과는확실히다르다. 그렇기때문에오히려이들은거장 의반열에올라자랑스럽게존경받고있다.

오늘날예술을지키는자는오직한가지기준, 하나의가치, 곧돈만 을생각한다. 얼마나위대한작품이나같은질적인문제에는관심이없 고얼마나많은달러를버는지에만관심이있다. 그래서미르보 (Octave Henri Marie Mirbeau) 의성격극『사업은사업 Les Affaires Sont Les Affaires』에나오는금융업자는색깔만요란한미술작품을보고이렇 게말한다.

“얼마나위대한작품인지보시오. 5 만프랑짜리입니다.”

꼭우리주변의천박한벼락부자들같다. 이런엉터리인물들은위대한 작품을발견했다고떠들면서자기수준의천박함을돈으로메우려한다.

사회에서저질러지는가장용서할수없는범죄는사상의자유와관련된 것이다. 민주주의를내세우는나라에서너무나확실히게다수의횡포가자 행된다.

미국의개혁운동가웬델필립스 (Wendell Philips) 는 50 년전이렇 게말했다.

“절대적인민주적평등이보장된우리나라에서는여론이전지전능한 것이다. 여론이라는독재적권력은미치지않는곳이없어숨을곳도없다. 여론이나투표의결과가자신의사회생활이나사업에영향을미치지않을 것이라고생각하는국민은단한명도없을것이다. 그리하여국가는자기의 신념을두려움없이행사하는개인들의합이아니고겁쟁이들이모여있는 집단이된다. 다른어떤나라사람들보다미국인들은서로를두려워한다.”

우리의현실은웬델필립스가직면했던상황에서조금도더나아지지못 했다.

오늘날도그때와마찬가지로여론은전능한독재자이다. 겁쟁이들의 집합인다수는자기영혼과마음이얼마나가난한가를반영해주는여론을 그대로수용한다. 이런상황에서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대 통령같은인간이전례없이부상할수있었다. 루즈벨트는어리석은대중의 심리를잘이용한가장사악한인간이다. 정치가로서그는다수의인간은이 상이냐고결함에는거의관심이없다는사실을알았다. 대중들은그저겉 모습이그렇듯하면그만이었다. 대중들은비가오는지눈이오는지관심도 없고, 흑인들이치한들에게돌려싸여린치를당하거나말거나신경도쓰지 않았다. 그저대중적흥밋거리에희희덕거렸다. 정신상태가더욱가증스

럽게뒤틀릴수록대중들은더욱기뻐하고환호했다. 이렇게이상은없고영 혼은천박한상황에서루즈벨트는당대의인물로행세했다.

한편정치적위상을높이려고하는자들과세련되고문화적이거나름의 능력을갖춘자들은자기몸을사려어린애처럼침묵을지키고있다. 우리시 대가개인주의시대라는주장은어불성설이다. 우리시대는모든역사의아 품을반복하고있을뿐이다. 진보와계몽과과학과그리고종교적·정치적· 경제적자유를위한모든노력이대중이아닌소수로부터나온다. 항상그렇 듯오늘날도소수가진정제대로이해받지못하고쫓기고투옥되고고문을 당하고살해된다.

나자렛의선동가가주창한형제애의원칙에는생명과진리와정의의쌍 이보존되어있다. 그러나이빛은소수의빛일뿐이다. 그런데의원칙을다 수가장악하는순간형제애의원칙은고통과재앙을퍼뜨리는피와불을부 르는원칙과예언이된다. 로마의전제정치에대한공격은한밤중여덱속 에서솟아오르는태양과같았다. 후스 (Johannes Huss) 나칼뱅 (John Calvin), 루터 (Martin Luther) 같은위대한인물들의등장이었다. 그 러나로마가톨릭이라는괴물에대항한그들에게대중은그적못지않게잔 혹하게공격했다. 이이단자, 곧소수는이런행태에굴복하지않으려했고, 그로인해화를당했다. 무한한정열과희생과인내를시현한후인간의정신 은마침내종교적환상에서자유로워졌다. 소수의인간은계속새로운정복 을향해나아가고다수는뒤에처진다. 세월이흐르면서진리는허위의확산 과함께왜곡된다.

정치적으로볼때그간존볼 (John Ball), 와트타일러 (Wat Tyler), 윌리엄텔 (William Tell) 과같은위인들을본받을수많은개인들이왕과 독재자들의권력에대항해싸웠지만인류는여전히절대적노예상태이다. 개인주의적선구자들이불때이세계의뿌리까지뒤흔든엄청난사건은프 랑스대혁명이다. 흔히그렇듯엄청난사건은사소한사건에서축발된다. 한선동가가미유데몰랭 (Camille Desmoulins) 의웅변과열정은여리 고성이나팔소리와같았다. 그후고문과학대와공포의기구와상징인바스 티유감옥이불태워졌다.

모든시대에서항상위대한이념, 해방의기치를든자는소수였다. 대중 이기치를들지않았다. 대중은이무거운것발을옮기지못한다. 이런진리 는다른어떤곳보다도러시아에서확연히입증되었다. 이미수많은사람들 이피에주린정권에의해목숨을잃었지만왕좌에앉은괴물은조금도동요 하지않았다. 강철같은머리를뒤집어쓰고문화적으로이념적으로문학적 으로, 가장내밀한감성까지도억압당하고있는상황에서어떻게독재자를 몰아내는일이가능하겠는가? 기동성이떨어지고게을러터진다수인대 중, 곧러시아농노는한세기에걸친투쟁과희생과말할수없는비참함을겪 고도여전히“하얀손을가진사람”(지식인을뜻한다.-역자주) 이밧줄을가 쳐와우물에빠진자신들을건져줄것이라고믿었다.